

청소년가출 예방을 위한 가족 및 지역복지 서비스 모형*

엄 명 용**

I. 연구목적 및 배경
II. 가출원인에 관한 문헌연구I. 연구목적 및 배경
III. 이론적 틀
IV. 연구방법
V. 결 과
VI. 논의 및 함의
VII. 문제 예방을 위한 서비스 모형
VIII. 맺는 말

I. 연구목적 및 배경

교내 외의 청소년 폭력 문제, 성범죄, 소녀 윤락행위 문제, 미혼모 문제 및 기타 청소년 비행들이 부모의 통제를 벗어난 청소년에 의하여 행해지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 가출은 모든 청소년 비행의 출발점이라고 보여진다.¹⁾ 청소년 가출문제는 그 심각도 면에서 청소년 개인, 그들이 속한 가정, 지역사회 및 국가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책에 대한 연구는 미흡했다. 여러 선행 연구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었고 언론 및 대중매체들도 그 문제의 실상을 보도하여 사회문제로 부각시켰으나 선행 연구의 대부분은 가출동기를 조사 및 논의하거나 사후 대책에 중점을 두었었고 언론이나 대중매체들은 일회성 기사화에 그쳐 왔다.

* 이 논문은 199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공모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1) 김준호, "청소년의 가출과 비행의 관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3권 제4호, 1992, p. 99.

많은 가출청소년이 구조적 결손가정, 또는 기능적 결손가정으로부터 나온다고 할 때, 청소년 가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문제 가정에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채 가출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가정으로 돌아가게 될 경우 가출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제는 예방적 서비스의 내용이다. 어떠한 서비스를 어떤 방향으로 어떤 가정에 제공하여야 가출 예방기능이 적절히 발휘될 수 있는나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개인, 가족, 그리고 환경의 복합작용으로 보고 이 세 가지의 요인들 가운데 가출자와 비가출자 사이에 유의한 차를 나타내는 요인들을 찾아내어 이들을 바탕으로 청소년 가출예방을 위한 가족복지 서비스 모형을 개발하는 데 있다. 특히, 개인적 요소와 환경적 요소의 영향을 절러 내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고 보고, 가정의 구조, 의사소통 상태, 상호 교류관계, 내부 응집력, 가족에 대한 청소년의 만족도, 가족의 위기 대처능력 등의 제 요소들 중에서 가출과 비가출로의 집단분리를 초래하는 요소들을 집중적으로 규명해 보고자 한다.

청소년 가출 예방대책에 대한 연구가 시급히 요청되는 이유는 우리사회에서 잠재적 가출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기 때문이다. 사단법인 청소년 선도위원회는 한해 가출하는 청소년의 수를 20만 명으로 추산한다.²⁾ 1994년 한해 경찰청 182 신고 센터에 접수된 가출 건수만도 14,407건이었다고 한다.³⁾ 잠재적 가출 현황을 나타내 주는 자료로서 1991년 11월의 YMCA 청소년 설문조사를 보면, 전체 응답자 5,232명중 74.4 %가 가출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대답하고 있고, 14.3%에 달하는 청소년들은 이미 가출을 경험한 바 있다고 답하고 있으며, 절대 가출을 해서는 안된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21.9%뿐이었다.⁴⁾ 이렇게 볼 때 주위에서 체감하는 청소년 가출은 매우 심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반면에 서울시립아동상담소의 년도별 가출아 단속 및 조치 현황 통계는 가출아 단속 수가 최근 몇 년간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⁵⁾ 1970년에 시립 아동 상담소에 단속 송치된 가출자의 수는 총 6,490명이었고, 1980년에는 6,863으로 다소 증가를 보였다가 1981년에 6,022명(치안본부 자료에 의한 만 20세 이하 가출자는 12,161명⁶⁾), 1982년에 4,500명, 1983년에는 4,026명으로 감소하여 1985년에는 2,803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그후 계속적인 감소를 보이다 1992년에는 1,082명, 1993년과 1994년에는 각각 752명과 761명의 가출자만이 단속됨으로써 현저한 감소를 보였다.

2) 1995년 5월 28일 방영된 KBS 추적 60분, "집이 싫은 아이들"의 내용중 인용.

3) ibid.

4) ibid.

5) 서울특별시 시립 아동상담소, 『사업현황』, 서울특별시 시립 아동상담소, 1995, p.16.

6) 치안본부, 『소년보도 종합분석』, 1982, p. 26.

서울시립아동상담소의 통계에 나타난 추이는 가출의 실제적인 감소라기보다는 단속 보호권에 들어온 가출자 수의 감소라고 보아야 타당할 것 같다. 교복 및 두발 자율화로 인하여 가출 청소년의 선도나 적발이 어렵다는 점과 가출후 취업 가능한 여러 가지 산업들의 발달로 가출자들이 신속하게 그 쪽으로 흡수된다는 점 등이 단속 보호권에 들어오는 가출자의 수를 감소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실제로 여성들의 가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나 여성들은 각종 서비스업에 신속히 유입됨으로 인해 거리에서의 단속에 포착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⁷⁾

가출 압수가 계속해서 늘어가는 상황 속에서 청소년이 가출한 후 그들을 단속, 적발, 선도해서 그들의 가정 속으로 되돌려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가출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어느 문제보다도 예방대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요청된다고 본다.

II. 가출원인에 관한 문헌연구

1. 개별적 고찰

국내외의 선행 연구들은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집중적 연구의 방향만은 분명히 제시해 주고 있다. 국내에서 한완상은 가출 예방을 위해서는 권위주의적인 부모가 실질적 권위를 가진 부모로 바뀌어야 하며 청소년의 욕구를 충족 내지는 소화할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가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⁸⁾ 표갑수는 1978년 6월부터 1979년 5월 사이에 가출후 귀가한 370명을 대상으로 한 가정 탐문 조사에서 가출의 이유로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정(가정의 파괴, 양친의 자력부족, 가정의 부적합, 양친의 질병 등)을 들었고, 우리나라에서의 가출 동기는 가정불화나 가족관계상의 문제가 32.5%로 가장 많고, 빈곤이 9.3%, 학교 생활부적응이 8.3%라고 밝히고 있다.⁹⁾ 그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우선 가족복지 사업의 강화를 주장하였다. 특히 가족 기능의 원만한 수행을

7) 1995년 5월 MBC 라디오 “김한길과 사람들”에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 선도회 박부일 회장의 주장. 그에 의하면 2년 전부터 여성 청소년 가출의 수가 남성 청소년 가출의 수를 앞서고 있으나, 여성들인 경우 원하기만 하면 향락산업이나 서비스 산업에 100% 취업이 가능하다고 함.

8) 한완상, 『민중과 지식인』, 정우사, 1978, p. 136.

9) 표갑수, “아동의 가출원인에 관한 연구: 가정환경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14, 중앙대, 1980, p. 31.

도모하기 위해 전문가를 통한 가족치료 및 가정생활 교육을 강조했다.

내무부 치안본부의 1980년대 자료는 가출원인으로 가정불화, 부모의 방임, 부모의 엄격, 빈곤 등 가정적인 문제로 인한 경우가 43.2%나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¹⁰⁾ 장인협은 가출의 원인을 개인, 가정 및 지역 사회적 요인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가정적 요인으로 가정내 불화, 부모들의 학대와 방임 및 극심한 빈곤을 지적하였고, 지역 사회적 요인으로는 청소년들을 유혹하는 선정적인 광고 및 퇴폐적 환경을 들었다. 가출 예방대책으로는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를 통한 예방을 주장하고 이를 위해서 특히 가족복지사업의 체계적 전달을 강조하였다. 가족복지 사업으로는 부모나 자녀들을 위한 교육의 강화와 문제 가족들에 대한 상담제도 강화를 주장하였으나, 교육이나 상담의 초점 부분은 지적되지 않았다.¹¹⁾

송정부는 가출이 가출 청소년 자신의 개인적 문제보다는 가정적 요인과 사회, 문화적 요인이 상호 작용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제일 대책으로 가족복지 정책을 들었다. 가족복지 정책으로는 빈곤가정이나 저소득가정에 대한 수입보장으로서 연금제도, 가족수당, 아동수당 및 가족부조 등의 제도의 실시를 요구하여 가출예방만을 위한 특별 가족복지 프로그램보다는 전반적 가족의 기능향상을 위한 복지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¹²⁾ 이용교는 청소년 가출은 합리적 인간관계의 부재의 당연한 결과로 보고 가출후 대책보다는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예방책으로서 올바른 청소년 이해를 위한 부모교육과 기본적인 인간교육을 들었다.¹³⁾

최경석은 일시보호시설에 수용중인 755명의 아동들을 대상으로한 연구에서 가출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가정적 요인이 70.2%를 차지한다고 밝혔다.¹⁴⁾ 이에 대한 내용을 보면, 계부 또는 계모의 학대 방임이 26.1%, 부모의 불화 20.6%, 부모 또는 모 또는 부모의 사망 12.5%, 부나 모의 가출 9.6%, 부모가 이혼 또는 별거로 유기된 아동이 1.4%이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학교를 통한 예방교육, 아동상담소의 증설과 강화, 가정상담소의 강화와 증설, 일시보호시설의 기능 전문화, 부랑아 보호체계의 일원화 등을 주장하였다.¹⁵⁾

국외에서는 청소년 가출 문제의 원인을 청소년 자신의 문제, 가정이 안고 있는 문제, 사회환경 등에서 찾는 연구의 틀을 일찍부터 정착시키고 연구를 계속해 왔으나, 문제해결 및 예방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10) 표갑수, "아동의 가출원인에 관한 연구"(앞 논문), 1980, p. 30에서 재인용.

11) 장인협, "청소년 비행과 가출", 『아산』, 16, 1982, p. 7.

12) 송정부, "청소년의 가출원인과 대책", 『청첩』, 11(4), 1987, pp. 18-23.

13) 이용교, 『한국 청소년복지의 현실과 대안』, 은평천사원출판부, 1993, pp. 62-90.

14) 최경석, "가출, 부랑아의 발생원인과 대책", 『사회정책연구』,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제1집, 1982, p. 121.

15) 최경석, 앞 논문, 1982, p. 144.

부족했다. Levine, Metzendorf & VanBoskirk는 청소년 가출의 원인을 주로 가족 내부에서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그 예로서는 ① 청소년과 부모간의 대화부족, ② 부모에 의한 유기, 학대 및 착취, ③ 부모의 비합리적 요구, 기대 및 제한, ④ 가족내부의 균열 등을 들었다.¹⁶⁾ Sharlin & Mor-Barak는 가출현상을 부모의 불합리한 권위에 대한 반발로 해석하여 국내의 한완상 (1978)과 일치된 견해를 보였다.¹⁷⁾ Minuchin & Barcai는 가족에 위기가 엄습할 때 대응행동의 일환으로 가족구성원 중에서 가장 약한 자가 이상행동을 표출시킨다고 주장하여 가출현상과 같은 이상행동이 가족의 병리현상을 나타내 주는 위기라고 보고 가족의 기능적 구조를 재구성하거나 재균형시킴으로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장하였다.¹⁸⁾

국내외의 선행 연구들은 가출의 원인들을 개인의 성격적 특성, 가정적인 문제(구조적 결손, 기능적 결손, 빈곤 등), 학교생활의 부적응, 나쁜 친구와의 사귀 등에서 찾으면서, 문제의 해결과 예방을 위해서는 가족에 대한 개입을 강조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또한 이들 연구들은 가출청소년과 비가출 청소년 가정, 문제시되는 제 요소 면에서 실증적으로 비교하지 않았다는 공통점도 갖고 있다. 대개의 연구가 가출 청소년들에게 가출의 이유를 물어서 그 답으로부터 문제의 요인을 추출해 내려왔다. 이것은 가출 청소년 가족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만을 부분적, 표면적으로 서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족, 학교 및 사회적 변수들 가운데 가출집단과 비가출집단간의 분리를 일으키는 요인들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가출 문제 예방 및 재발을 억제하기 위해 각 요인들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를 알아 볼 수 있을 것이다.

2. 총체적 정리

선행연구에서 제기된 가출의 원인을 총체적으로 서술한다면, 가출은 외적 조건에 대한 개인의 대처 능력 및 자원의 부족, 또는 개인의 기대 목표와 이를 성취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 및 수단간의 괴리가 클 때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구조적 시각에서 보면 가출은 개인의 문화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간의 괴리라고 할 수

16) R. S. Levine, D. Metzendorf, & K. A. VanBoskirk, "Runaway and throwaway youth: A case for early intervention with truants", *Social Work in Education*, 8(2), 1986, p. 94.

17) S. A. Sharlin & M. Mor-Barak, "Runaway girls in distress: Motivation, background, and personality", *Adolescence*, 27(106), 1992, p. 388.

18) S. Minuchin, & A. Barcai, "Therapeutically induced family crisis", In C. J. Sager, & H. S. Kaplan (Eds.), *Progress in group and family therapy*, New York: Brunner/Mazel, 1972, pp. 322-328.

있다. 이 두 가지 정의 모두 개인적 요인과 개인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을 가출의 원인으로 포함시킬 뿐만 아니라 그 두 가지 요소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가출이 발생함을 암시하고 있다. Hill의 ABCX 이론이나¹⁹⁾ McCubbin과 Patterson의 Double ABCX 이론에서는²⁰⁾ 가족의 위기를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 및 가정의 자원과, 사건에 대한 개인의 인지가 상호 작용해서, 또는 그러한 과정들이 되풀이되는 과정에서 축적된 상황이 위기에 대한 적응 또는 부적응적 대처를 가져온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들 이론에 의하면, 가출 사건을 가정의 위기로 볼 때, 가출은 가정 내의 갈등 요인을 개인이 어떻게 인지하느냐, 인지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자원이 개인과 가정 내에 존재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된다. 따라서 서로 상호 작용하는 요소 중의 일부인 개인적 요소와 상황적 요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황적 요인은 다시 가정, 학교, 지역사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출은 어느 한가지 요인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제 요인들의 복합적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한다고 본다.

1) 개인적 요인

개인적 요인에 대한 고찰은 원래 가출의 원인이 개인의 병리적 현상에 있다는 사실에 비증을 두면서 시작되었다. 가출자는 일반인과 다른 심리적, 정신적 상태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²¹⁾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가출을 하고 다른 사람은 가출하지 않는 데에는 개인적 특성의 차이가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가출을 유도하는 개인적 특성으로는 낮은 충동 통제력, 낮은 자아개념, 부족한 인내력, 주체성 부족, 의지력 부족 등을 들고 있다.²²⁾ 이상의 성격적 요인들로 인해 청소년은 주어진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대처, 극복하기보다는 충동적인 회피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 개인의 기대 목표나 문화 목표가 자기가 처한 환경, 즉 가정, 학교, 사회가 제시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다른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욕구가

19) R. Hill, "Social stress on the family: Generic features of families under stress. *Social Casework*, 39(2/3), 1958, 139-150.

20) H. I. McCubbin & J. M. Patterson, "The family stress process: The double ABCX model of adjustment and adaptation". *Marriage and Family Review*, 6(1/2), 1983, pp. 7-37.

21) 이러한 관점에서의 가출아 조사 문헌은 T. Brennen, D. Huzing, & S. D. Elliott, *The social psychology of runaways*, Lexington: Lexington Books, 1978; R. L. Jenkins, "The runaway reaction",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28(2), 1971, pp. 60-65; H. Stierlin, *Separating parents and adolescents: A perspective on running away, schizophrenia and waywardness*. New York: Quadrangel, 1974 등을 참고할 것.

22) T. Leventhal, "Control problems in runaway childre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9, 1963, p. 2-37.

다양하고 그 수준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도 가출 예방을 위해서 조절되어야 할 개인적 요인이라 볼 수 있다. 과보호 하에서 성장한 청소년은 그들의 부모를 자신들을 양육해 온 그리고 앞으로도 믿고 의지할 권위를 가진 실체로 보기보다는 자신들의 필요와 욕구 충족만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때 부모가 더이상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없거나 새로운 욕구 충족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되면, 부모를 굴레라고 생각하고 그곳으로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것이다.

2) 가정적 요인

가정은 청소년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곳일 뿐만 아니라 문화 및 가치 체계를 습득, 전달하며 인격을 형성하여 주는 제 1차적 집단이다. 따라서, 순기능적인 가정은 가출 및 비행 예방에 가장 효율적인 체계가 될 수 있는 반면, 부기능적인 가정은 가족 구성원들에게 역기능을 부과, 가출 내지 비행을 촉발하게 하는 장소가 될 수 있다. 1995년 5월의 가출 원인에 관한 서울 남부경찰서 통계에서 총 85명의 가출자 중 46명 (54%) 이 집이 싫어서 가출했다고 밝힌 것만 보아도 가정 상황이 가출에 기여하는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²³⁾

대부분의 가출에 관한 연구에서는 결손가정에서 가출 청소년이 나온다고 결론짓고 있다.²⁴⁾ 결손가정은 구조적 결손과 기능적 결손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구조적 결손은 외형상의 결손으로서 이혼, 별거, 사망, 또는 기타의 이유로 부모 중의 한 분 또는 모두가 안 계시는 가정을 의미하며, 기능적 결손은 구조적 결손 여부를 떠나서 주요 가족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가족을 의미한다. 구조적 결손이 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친부모가 생존해 있는 정상 가족 구조에서도 가출자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구조적 결손보다는 기능상 결손이 가출과 더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고 본다.²⁵⁾ 산업화, 도시화, 사회구조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가족의 기능, 조직이 전반적으로 감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가족 구성원들의 욕구는 다양화되어 가고 있고, 가족 내에서의 지위, 역할 면에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적인

23) KBS, 추적 60분, 앞 방송내용, 1995.

24) 송정부, 앞 논문, 1987, pp. 18-23; 장인협, 앞 논문, 1982, pp. 6-9; 표갑수, "청소년 가출의 요인과 대책", 『아산』, 하계호, 1980, pp. 22-26; 표갑수, "아동의 가출원인에 관한 연구-가정환경을 중심으로"(앞 논문), pp. 25-58; United States General Accounting Office, *Homeless and runaway youth receiving services at Federally funded shelters*, 1989, GAO/HRD-90-45, pp. 2-3, 12, 17-18; M. J. Rotheram-Bonus, "Serving runaway and homeless youths", *Family and Community Health*, 14(3), 1991, pp. 23-32.

25) 표갑수, "청소년 가출의 요인과 대책"(앞 논문)에서 구조적 결손가정에서 청소년 가출이 많음을 밝히고 있다. p. 25.

빈곤 상태에 있거나, 기능적 구조의 경직, 또는 가족 내의 규칙들이 유동적이지 못하여 새로운 변화 상황에 적응해 가지 못할 때 기능상의 결손이 초래된다고 볼 수 있다. 부기능 가정, 즉 기능적 결손 가족은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가족이며, 그 상태에서 스스로 벗어날 능력이 없는 가족이다. 따라서, 청소년은 가정 밖에서 그들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키려 하는 것이다. 누군가가 개입하여 이러한 가족 기능을 수정, 보완해 주지 않는 채 가출 청소년이 그들의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되풀이되는 가출로 가출의 상습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3) 학교 요인

가족 이외의 사회환경중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환경이 학교이다. 학교에서 학생들은 사회 생존에 필요한 훈련과 함께 규율, 규범을 획득하게 된다. 학교에서의 압박 요인은 친구, 선생님, 그리고 학업 성적 등을 들 수 있다. 그 중에서 가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역시 불량 친구 관계이다. 청소년 선도위원회의 자료나 다른 학술 연구에서 불량 친구가 가출의 원인이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다.²⁶⁾ 가정 내에서도나 학교에서 비슷한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친구들끼리 집단을 형성하여 행동을 함께 하는 경우도 있고, 자아 정체감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친구의 권유에 빠져 가출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청소년기는 집단에 소속되거나 집단이 제시하는 기준에 일치하고자 욕구가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불량 친구에 의한 유혹은 가출에 강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학교의 선생님과 관련된 가출 요인으로는 선생님의 구타와 불합리한 지도, 육성희비나 찬조비 명목의 교사의 금품 요구 등이 지적되고 있다.²⁷⁾ 선생님의 심한 질책과, 타학생들로부터의 고립화 시도가 학교에 가는 것을 싫어하게 만들고, 이것이 어떤 계기를 만났을 때 가출 행위로 나타날 수 있다. 특히 견딜 수 없는 가정 상황으로 인하여 가출했던 학생이 학교로 복귀했을 때, 또는 한 번의 실수로 인한 비행 후 학교로 복귀했을 때, 이들을 가출, 또는 비행 청소년으로 낙인찍고, 징계한 후 격리하는 등의 가혹한 상황을 조성하는 경우, 가출의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다. 이밖에 학교 사회에 만연한 성적 제일 주의는 학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많은 건전 청소년들에게 학업에 대한 흥미를 상실케 하며, 그로 인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압박감, 열등감, 끝내는 자포자기의 심정을 유발함으로써 가출이라는 극단적인

26) 1990년 청소년 선도위 자료에 의하면, 조사대상자 587명 가운데 불량친구로 인해서 가출했다고 밝힌 가출 청소년이 241명이었다.재인용, 『서울 YMCA 청소년 자료집』, 1990, p. 91-100; 박부일, “청소년의 가출 예방대책과 선도대책”, 『통일로』, 50, 1992, p. 182; 표갑수, “아동의 가출원인에 관한 연구”(앞 연구), 1980, p. 56.

27) 박부일, 앞 논문, 1992, p. 183.

행동을 취하게 만든다고 볼 수 있다.

4) 사회적 요인

사회적 요인과 가출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없지만, 사회적 상황이 가출에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사회적 요인은 간접적인 요인과 직접적인 요인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간접적인 요인은 사회의 혼돈된 가치체계라고 볼 수 있다.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무슨 수단이라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그릇된 가치관과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황금 만능주의가 결합되어 현실 생활에 어려움과 불만을 가진 청소년을 유혹하고 있는 측면이 그것이다. 이에 더하여 사회내의 권위실종을 들 수 있다. 청소년이 무서워하는 존재도 없고 청소년을 무섭게 야단치는 존재도 없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 상황 속에서 청소년은 가출이라는 행동을 통해 자신의 힘의 신장을 기도한다고 볼 수 있다.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사회 요인은 청소년을 이용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유희 및 환락 산업들의 번창이다. 과거의 가출 청소년들은 가출 후 갈곳이 없어 많은 수가 단속 보호 권으로 들어올 수 있었음에 반해서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쉽고 빠르게 사회의 각종 산업 속으로 진입해 버린다. YMCA 청소년 쉼터 담당자에 의하면, 값싼 노동력 때문에 각종 사업장에서 청소년들을 고용하고 있다고 한다.²⁸⁾

III. 이론적 틀

국내외의 여러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청소년 가출은 가출청소년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청소년들이 속해 있는 가족 및 주변의 상황과 관련하여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주변으로부터 가족에 가해지는 각종의 요구들에 대해서 가족이 어떠한 자원들을 동원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대한 이론적 틀이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Hill의 ABC model과 McCubbin & Patterson의 Double ABCX model이 그것이다. 이들 모델들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나 곤란에 대한 가족의 대응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출에 관한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된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Double ABCX model을 구성하고 있는 변수들과 관련지어 각 요인별로 분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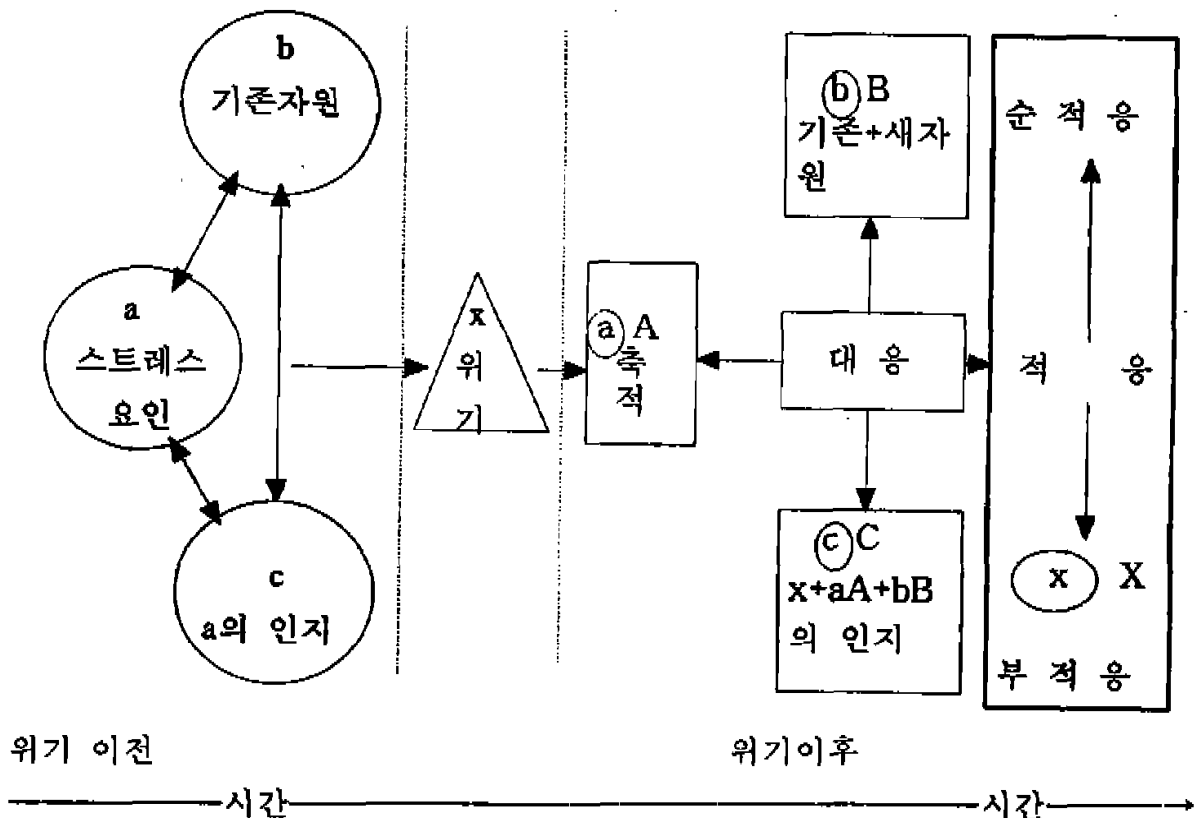
가족 스트레스 및 대응에 관한 Double ABCX model은 가족 스트레스와 위기에 관한 Hill의 ABC model에 기초를 두고 있다. Hill의 ABC model에 의하면 가족의

28) KBS 추적 60분, 앞 방송내용 (1995)에서 인용.

위기(x 요인)는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일련의 사건들 및 곤란들(a 요인), 이러한 요구들에 대응하기 위해 가족 내에 존재하는 자원들(b 요인), 그리고 스트레스를 일으키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에게 부여하는 의미 또는 사건에 대한 인지(c 요인) 등이 상호 작용한 결과로서 나타난다고 보았다.

Double ABCX model에서는 ABC model에서 제시한 각 요인들에 대하여 위기상황 이후의 가족의 대응 과정과 관련된 변수들을 추가하였다. 위기상황 (x 요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스트레스 유발성 사건 또는 곤란들이 축적되는 상태를 가족에게 주어진 대응과업의 축적 (pile-up, aA 요인)이라고 보았고, 이러한 축적된 스트레스성 사건 및 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가족이 동원하는 기존의 또는 새롭게 동원되는 자원을 bB 요인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위기이전에 가족에 부과된 스트레스성 사건 및 곤란 그리고 그후에 축적된 대응과업들을 가족이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는가 또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를 cC요인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상의 aA, bB 및 cC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통한 대응활동의 결과가 부적응 (maladaptation) 또는 순적응 (bonadaptation)의 상태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그림 1>은 이러한 과정들을 그림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

<그림 1> The Double ABCX Model



Hill의 ABC model에서 첫 번째 구성요소(a 요인)에는 스트레스를 발생시키는 사건(stressor)과 곤란(hardships)이 포함된다. 스트레스요인(stressor)은 가족체계내의 변화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가능성을 지닌 채 가족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속의 사건들이나 급격한 변천으로 정의된다²⁹⁾. 곤란은 스트레스 유발성 사건들(stressor)과 관련되어 가족에게 부과되는 요구(demand)이다. 갑작스런 의료비의 조달, 신체상 불구가 된 가족원을 돌보는데 필요한 시간과 자원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스트레스 유발성 사건과 그에 따른 부담이 장차 가족이 대응해야 할 과제로서 발생한다.

가족에게 주어진 과제(a 요인)를 해결하기 위해 동원되는 가족자원(Hill의 B 요인)은 가족의 변화가 위기상황에까지 도달되지 못하도록 방지할 수 있는 가족의 총체적인 능력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가족간의 공동관심, 애정, 경제적 상호의존 등으로 특징 지워지는 가족의 총체성 또는 응집력과, 위기상황을 맞아 가족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적응능력, 가족생활에서 얻어지는 만족감 등이 포함된다. 그밖에 사회적 지지망의 적절한 사용과 확대가족으로부터의 도움, 친구나 이웃으로부터의 도움 등이 사회적 지지망에 포함된다. 문제해결을 위한 가족의 접근방법 또한 가족의 자원에 포함된다.

Hill의 ABC model에서 c 요인은 가족이 스트레스성 상황에 부여하는 의미, 또는 상황의 평가 및 사정(appraisal)을 의미한다. 가족에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사건으로 인해서 가정이 와해되거나 기능적 혼란상태에 빠지는가의 여부는 그 사건에 대한 가족 나름대로의 주관적 설명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발생한 사건을 가족이 어떻게 받아들이며, 발생한 이유를 어떻게 정의하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변환경이 어떻게 동원되고 배열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 등에 따라서 위기가 발생되기도 하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미 발생한 유사한 스트레스성 사건들이나 곤란들에 대해 어떤 가족은 보다 긍정적으로, 보다 이성적으로 인지함으로써 해볼만한 하나의 도전이라고 받아들이는 반면, 어떤 가족은 그러한 사건들을 감당할 수 없는 사건으로 여기거나 가족과벌의 전조로 받아들이기도 한다.³⁰⁾

Hill의 모델에서 마지막 요인인 위기상황(x 요인)은 가족체계내의 붕괴, 혼란, 또는 무기력상태를 의미한다. 이것은 단순한 스트레스 또는 스트레스성 사건과는 구별되는 개념인데 스트레스, 즉 요구가 아무리 커도 그에 대응하는 자원의 양이 풍족하면 위기는 발생하지 않는다. 위기란 가족에 존재하는 자원이 가족에 쏟아져 내리는 요구들을 감당할 만큼 충분치 않을 때 발생하는 것이다.

29) H. I. McCubbin & J. M. Patterson, 앞 논문, 1983, pp. 7-37.

30) V. Gehardt, "Coping and social action: Theoretical construction of the life event approach. *Sociology of Health and Illness*, 1, 1979, pp. 195-225.

축적(pile-up)(aA 요인)에는 가족체계 또는 가족구성원들이 사회 속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유발사건 및 곤란, 전에 해결되지 않은 갈등, 가족의 발달에 따라 요구되어지는 과업, 가족 대응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일들, 그리고 가족 내외에서 맞이하는 불확실성 등이 포함된다.

가족의 대응적 자원(bB 요인)은 크게 나누어 기존의 자원과 확충된 자원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자원을 구성하는 요소는 각 가족구성원, 가족체계 및 지역사회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 Hill의 ABC model에서 처럼 가족자원을 구성하는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적 지지이다. 친구, 직장 동료, 이웃 및 종교기관 등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가족은 주요 위기 상황에 잘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빨리 안정을 회복할 수 있다.

사건에 대한 가족의 정의 및 의미부여로 일컬어지는 cC 요인은 새로이 발생하는 사건이나 곤란에 대한 주관적 의미에 더하여 이미 위기 상황을 발생시킨 사건이나 곤란을 성장을 위한 기회나 해볼만한 도전 또는 가족의 적절한 대응을 촉발시킨 유익한 사건들로 재인식하는 것을 포함한다.

Double ABCX 모델의 마지막 요소인 xX 요인은 앞서의 aA, bB 및 cC 요인들이 상호 작용하여 빚어내는 대응과정의 결과를 의미한다. 이것은 순적응과 부적응의 양방향에 걸친 연속개념으로 표현되는데 순적응은 가정에 부과된 여러 가지 요구와 그에 대한 갖가지 자원들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져 가정이 안정을 찾고 흠없이 보전된 상태를 의미한다. 반면에 부적응은 첫째, 가정의 고결성이 깨졌거나 악화된 상태, 둘째, 가족 구성원 또는 가족 전체의 건강, 안녕, 발달 등이 악화된 상태, 마지막으로 가족의 독립성 또는 자율성이 상실됐거나 퇴보된 상태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Hill의 ABC model과 McCubbin & Patterson의 Double ABCX model에 입각하여 가출현상을 파악하고자 했으며, 여기에 가출행동은 반드시 어떠한 욕구불만, 정신갈등을 경험한 후 비로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본 송정부(1987)의 견해를 결합하였다. 송정부는 충족되지 않은 욕구나 갖가지 갈등상황은 청소년의 생활환경속의 갖가지 관계에서 오며, 청소년 가출은 욕구불만 상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자원이나, 갈등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자원 및 도움을 확보하지 못한 약자의 갈등 회피 현상이라고 하였다.³¹⁾ 정리하면, 본 연구는 청소년 가출을 청소년 개인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청소년이 속한 가정이 생활환경 가운데서 생활해 가다가 일련의 스트레스 유발성 사건이나 곤란을 만난 후, 그에 대처하기 위해서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또한 사건이나 곤란들에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거나 의미를 재구성하는 등의 총체적 대응작용의 결과로서 빚어진 하나의 회피현상 또는 부적응 (maladaptation) 형태로 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가출이라는 가정의 위

31) 송정부, 앞 논문, 1987, p. 19.

기 상황에 작용하는 각종 변수들의 작용 과정을 규명하기보다는 이들 변수들 중에서 가장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는 변수의 확인을 통해서 가출과 비가출을 가장 효과적으로 분리해 내는 분리변수를 추출하고자 하였다.

IV. 연구방법

가족위기상황의 표출형태인 가출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가정적, 환경적 요인들을 가출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들로부터 확인해 낸 다음, 그 변수들을 앞서 제시한 McCubbin과 Patterson의 Double ABCX Model에 근거하여 aA, bB, cC 등의 요인으로 나누었다. 결과변수인 xX 요인으로서는 부적응 현상의 한 형태인 가출을 대입하였다. 각 요소들이 결합하여 순적응 상태를 나타낸 것을 비가출 청소년 가정으로 보았다. aA, bB 및 cC를 구성하는 각 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기구술형 설문지들이 사용되었다.

1. 설문도구

1) aA 요인 (스트레스 유발성 사건 또는 곤란) 측정을 위한 도구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건 또는 곤란한 일들이 청소년들의 삶 속에서 발생하였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Coddington의 Life Events Inventory for Junior High School이 사용되었다.³²⁾ 원래의 목록은 총 40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한국의 문화적 상황에 적당하지 않거나 이해가 불분명한 문항 7 항목을 제거하여 33 항목만이 사용하였다. 청소년들로 하여금 지난 1년 사이에 그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였는지를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하게 한 후, 표시된 각 항목마다 부여된 총격지수의 합으로 aA 요인의 양을 측정하였다.

2) bB 요인(가족내부의 자원) 측정을 위한 도구

(1) 가족 적응력 및 응집력

가족의 적응력 및 응집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Olson, Portner, & Lavee의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 III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³³⁾ 이 도구는

32) R. D. Coddington, "The significance of life events as etiologic factors in the diseases of children: A survey of professional workers,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16, 1972, pp. 7-18.

33) D. H. Olson, J. Portner, & Y. Lavee, "FACES III: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적응력 및 응집력을 측정하기 위한 항목이 각각 10문항으로 나누어져 있다. 주어진 각 문항을 읽고 그 문항이 자기 상황과 비교해 “거의 그렇지 않다”면 “1”에, “아주 드물게” 그렇다 면 “2”에, “가끔” 그렇다 면 “3”에, “자주” 그렇다면 “4”에 그리고, “거의 항상” 그렇다면 “5”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 수록 적응력 및 응집력 모두가 높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의 표본을 통한 알파 신뢰계수는 각각 0.69 (적응력)와 0.81 (응집력)이었다.

(2) 의사소통 형태

가족내의 의사소통 형태를 측정하기 위해서 Epstein, Baldwin, & Bishop의 McMaster Family Assessment Device 중에서 의사소통 형태 측정 항목 6 문항만을 활용하였다.³⁴⁾ 리커트 형태로 각 문항마다 1, 2, 3, 또는 4로 답하게 하였다. 점수가 높을 수록 의사소통 형태가 명백하고 직접적임을 나타낸다. 본 연구의 표본을 통한 알파 신뢰계수는 0.60이었다.

(3) 자원동원 형태

가족이 위기상황에 직면하여 가족내부의 자원과 가족외부의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동원하는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McCubbin, Larsen, & Olson의 Family Crisis-Oriented Personal Evaluation Scales를 사용하였다.³⁵⁾ 여기에는 bB 요인으로서 이웃 및 친척들로부터의 도움, 종교활동을 통한 영적 지지의 획득, 전문기관을 통한 도움 등 세 가지 하위 척도가 포함되어 있다. 1 - 5 까지의 리커트 형태의 답을 유도하였다. 높은 점수는 자원의 양이 많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표본을 통한 알파 신뢰계수는 차례로 각각 0.74, 0.77 및 0.59이었다.

(4) 개인의 성격적 특성

가족구성원인 개인의 특성이 bB 요인에 속함으로,³⁶⁾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개인의 특성중 가출과 관련된다고 생각되는 일부 성격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Jackson의 Personality Research Form E를 사용하였다.³⁷⁾ 이 도구중 개인의 자율성, 인내성, 충동성 등을 측정하는 항목만을 선택하여 주어진 문장에 대하여 “그렇다”

Evaluations Scales”, In D. Olson, H. McCubbin, H. Barnes, A. Larson, M. Muxen, & M. Wilson (Eds.), *Family Inventories (Rev.)*, St. Paul: Family Social Sciences, University of Minnesota, 1985, pp. 1-42.

34) N. Epstein, L. Baldwin, & S. Bishop, “The McMaster family assessment device,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9, 1983, pp. 171-180.

35) H. I. McCubbin, A. Larsen, & D. Olson, “F-COPES: Family Crisis Oriented Personal Evaluation Scales” In D. Olson, H. McCubbin, H. Barnes, A. Larson, M. Muxen, & M. Wilson (Eds.), *Family Inventories (Rev.)*, St. Paul: Family Social Sciences, University of Minnesota, 1985, pp. 143-159.

36) H. I. McCubbin, & J. M. Patterson, 앞 논문, 1983, pp. 8-9.

37) D. N. Jackson, *Personality research form manual(3rd ed.)*, Port Huron: Sigma Assessment Systems, 1989, pp. 6-7.

또는 “아니다”로 답하게 하였다. 점수가 높을 수록 자율성, 인내성, 또는 충동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세 가지 특성에 대한 알파 신뢰계수는 차례로 각각 0.61, 0.61 및 0.64이었다.

(5) 가족과 주변생활에 대한 만족도

가족과 주변환경의 삶에 대한 만족감 또한 b 요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음으로,³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자신들을 둘러싼 가족 및 주변환경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Olson, & Barnes의 Quality of Life for Adolescents를 사용하였다.³⁹⁾ 이 척도는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소년들이 자기 가족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를 1-5까지의 수로 표시하게 되어 있다. 높은 점수는 삶에 대한 만족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의 알파 신뢰계수는 0.80이었다.

(6) 부 또는 모의 부재 여부

가족 내에 부모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그것이 가족의 자원동원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하여 부모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를 “1”, 부모 중 어느 한 분이 없거나 부모 모두 없는 경우를 “0”으로 부호화 하였다.

3) cC 요인 측정을 위한 도구

(1) 사건에 대한 의미부여

가족에게 닥친 위기상황을 가족 나름대로 주관적인 의미 부여를 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McCubbin, Larsen, & Olson의 Family Crisis-Oriented Personal Evaluation Scales중⁴⁰⁾ 사건이 가져다주는 의미의 재구성 (reframing) 부분을 사용하였다.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1-5까지의 리커트 형태의 답을 유도하여 점수화 하였다. 높은 점수는 의미 재구성의 정도가 큼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표본을 통한 알파 신뢰계수는 0.69이었다.

(2) 책임 소재에 대한 의식(locus of control)

청소년 개인의 입장에서 자신이나 가족에게 일어나는 사건 또는 곤란을 자신의 책임으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사회 또는 외부적 요인의 탓으로 돌리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Nowicki-Strickland의 Nowicki-Strickland Internal-External Control Scale for Children을 사용하였다.⁴¹⁾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어진 문항에 대해 “그렇다” 또는 “아니다”로 대답하도록 되어 있다. 낮은 점수는 문제나 어려움의

38) R. Hill, 앞 논문, 1958, pp. 139-150.

39) D. H. Olson, & H. L. Barnes, "Quality of life for adolescent form, In D. Olson, H. McCubbin, H. Barnes, A. Larson, M. Muxen, & M. Wilson (Eds.), *Family Inventories* (Rev.), St. Paul: *Family Social Sciences*, University of Minnesota, 1985, pp. 104.

40) H. I. McCubbin, A. Larsen, & D. Olson, 앞 논문. 1985, pp. 143-159.

41) S. Nowicki, Jr., & B. R. Strickland, "A locus of control scale for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0, 1973, pp. 148-154.

타를 자기 자신에게 돌림을 의미하고 높은 점수는 사회환경이나 기타 외부적인 타으로 돌림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표본을 통한 알파 신뢰계수는 0.70이었다.

4) xX 요인의 측정

부적응(maladjustment)의 한 형태로 표출된 것을 가출 사건으로 보았고 순적응(bonadjustment) 상태의 유지를 가출하지 않은 상태로 보았다. 가출을 "1" 로, 비가출을 "2" 로 부호화 하였다.

2. 설문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설문지를 이용하여 가출청소년과 비가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출 청소년을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집을 떠나 24시간 이상 돌아오지 않는 18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가출 청소년들을 서울과 부산의 두 지역에서 표집되었다. 서울지역에서는 서울시립아동상담소에 보호되고 있는 아동들 중에서 가출한 사례만을 구별하여, 가출 아동을 보호 지도하고 있는 분이 감독하는 가운데 설문지에 답하는 형식으로 자료가 수집되었다. 부산지역에서는 소년감별원에 보호중인 아동 및 청소년들 중에서 가출 사례만을 대상으로 지도 선생님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서울과 부산을 합해 총 188 명의 가출아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나 일부항목에 대한 기입이 누락된 4 사례를 제외하고 184 사례가 자료분석에 이용되었다.

비가출 청소년 집단은 가출 청소년과 연령 및 성별을 결합(match)하여 가출 사실이 한 번도 없는 일반 중고등학교 학생중 표집하였다. 서울과 부산에 있는 학교 중 무작위 균집표집방법을 사용 표집하였다. 서울과 부산에서 총 280 사례가 표집되었으나 이중 3 사례는 일부항목에 기입이 누락되었거나 같은 번호에 일률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 일차적으로 제외되었고 나머지 277 사례 가운데 34 사례는 충격적 사건 또는 곤란의 발생 여부를 측정하는 도구에 지난 1년 동안 아무런 사건이나 곤란을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출집단과의 비교 편의를 위해 이차적으로 제외되었다. 나머지 243 사례가 남았으나, 통계 분석에 있어서 제일종 오류(type I error)의 감소와 통계적 검증력(power)의 강화를 위해 가출청소년의 표집 크기와 같은 184 사례를 단순 무작위 표집법으로 추출하였다.

3. 자료분석 방법

먼저 가출집단과 비가출집단이 연령 및 성별 면에서 유사한가를 알아보기 위해, 연령에 대해서는 티 검증(t-test)을, 성별에 대해서는 카이 검증(chi test)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중다변인분석의 가정을 만족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 정상

분포 및 다중 변량 동질성 여부를 검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서 제시된 aA, bB 및 cC의 요인들중 어느 변수가 가출집단과 비가출집단을 가장 효과적으로 분리시키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별 판별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V. 결 과

1. 결합변수면에서의 두 집단의 유사성

연령에 대해 가출 및 비가출집단 사이의 t 검정(t test) 결과 두 집단은 연령상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t=-1.26$, $df=366$, $p=0.21$). 가출집단의 평균 연령은 14.38, 비가출집단의 연령은 14.58세이었다. 성별과 두 집단을 카이 검정한 결과 두집단에 여성과 남성이 유사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22$). 가출집단에는 남자가 134명, 여자가 49명이었으며, 비가출집단에는 남자가 124명, 여자가 60명이었다. 따라서 연령과 성별 면에서 두 집단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중다변인분석의 가정 검증

한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변수들이 개별 변량 동질성 면에서 동질이라고 판단이 났으나 중다 변량 동질성 면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1$). 하지만, Stevens는 표집의 크기가 동일할 경우 실제의 제일종 오류와 명목상 제일종 오류가 동일함을 여러 모의 검정의 예를 들어 밝혔다.⁴²⁾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집의 크기가 동일하므로, 중다 변량의 이질성에 상관없이 통계적 검증을 실시하였다. 다중 정상분포를 조사한 결과 다중 비정상 분포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한 변수(충격적 사건 또는 곤란)를 찾아내어 정상분포로 전환하기 위하여 자연로그 변환(natural log transformation)을 하였다. 이후 다중 정상분포 가정이 충족되었다.

3. 단계별 판별분석 결과

1) 주요변수 추출 및 판별식 산정

총 14개의 예언(독립) 변수들 중 중요 변수들의 선형결합으로 만들어진 판별식

42) J. Stevens, *Applied multivariate statistics for the social sciences*, Hillsdale: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986, p. 216.

이 청소년들을 가출자 집단과 비가출자 집단으로 어느 정도의 정확성을 갖고 분리해 내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비가출 집단 및 가출집단을 각각 두 개의 집단으로 다시 나누었다. 즉, 각 집단(n=184)에서 약 40%씩의 자료수(두집단 합, n=72x2=148)를 각각 무작위로 추출하여 판별식(discriminant function) 산정을 위한 분석 표본으로 사용했고 나머지 자료들(n=220)은 나중에 판별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검증 표본으로 사용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판별의 정확도가 부풀려지는 현상을 통제할 수 있다.

단계별 판별분석에 들어가기 앞서, 총 14개의 독립 변수를 총체적으로 고려할 때 가출자 그룹과 비가출자 그룹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먼저 검증하였다. Wilks' Lambda (0.647)에 의한 검증에서 포괄적 유의도는 유의도 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00). 따라서 두 그룹은 14개의 변수를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두 그룹간에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판별식 산정을 위한 과정으로 들어갔다.

판별식(discriminant function)은 최대한의 집단분리를 일으키는 기능을 갖춘, 예언(독립) 변수들의 선형 결합체이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개의 집단만이 존재하므로 단계별 추출방식에 의해 한 개의 판별식만이 추출되었다. 총 14개의 예언 변수중 6개의 변수만이 판별 변수로 선택되어 판별식에 포함되었다. 추출된 판별식은 유의도 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p=0.000; Wilks' Lambda=0.5515; chi-square=85.084, df=6). 추출된 판별식에 대한 집단 변인 상관계수(canonical correlation)는 0.6697이었다. 이것은 판별기능의 약 45%가 집단 변수(가출, 비가출)에 의해서 설명되고 있음을 나타내 준다. 아이겐 수치(Eigen value)는 집단간 자승화값을 집단내 자승화값으로 나눈 수치인데, 본 연구에서는 0.8130을 나타내 판별기능이 우수함을 나타내 주었다. <표 1>은 최종 선정된 변수별 판별함수 계수를 나타내 주고 있다. 표준화된 판별계수(standardized canonical discriminant coefficient)는 각 변수들이 대상들의 소속 집단을 판별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가를 개략적으로

<표 1> 선형 판별계수

변 수	표준화된 판별계수	Fisher의 선형 판별식 계수	
		집단-	가출자 집단 / 비가출자 집단
가족, 주변생활에 대한 만족도	-.33469		.4590899 / .4129342
사건에 대한 인지, 의미부여	.33724		.7230293 / .8420941
자율성	.27686		.0633634 / .2575281
책임소재에 대한 인식	-.36818		1.0683429 / .8969642
충격적 사건, 곤란	-.51717		10.4913254 / 9.2970774
부 또는 모의 부재	.62518		4.1815595 / 6.9449902
상수(Constant)			-59.9414427 / -55.1989085

나타내 준다. 가족 내에 부모가 두분 모두 계신지의 여부와 생활 속에서 맞부딪히는 충격적 사건이나 곤란한 일들의 양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sher의 선형판별식(Fisher's linear discriminant functions)은 집단을 판별하는 데 이용되는 점수를 구하는 데 사용된다. 각 개인에 대한 변수별 점수에 해당되는 판별계수를 곱하여 개인별 점수를 구한 다음 큰 값을 나타내는 집단에 개인을 배치한다.

<표 2> 판별체와 판별 변수와의 상관계수 (Pooled Within-Groups Correlations)

변 수	상관 계수	변 수	상관 계수
부 또는 모의 부재	.70753	가족의 응집력	.14093
충격적 사건, 곤란	-.61268	이웃 및 친척의 도움	.11484
사건에 대한 인지	.37923	종교를 통한 영적 도움	.11387
책임소재에 대한 인식	-.32864	가족의 적응력	.09245
충동성	-.22676	인내성	.08256
의사소통 형태	-.19887	가족, 주변생활에 대한 만족도	.03379
사건에 대한 인지	.16076	자율성	.01166

<표 2>는 각 변수들과 선형판별체 사이의 상관관계를 집단별로 계산한 후 합친 수치를 나타내 주고 있다. 추출된 주요 변수들과 선형 판별체 사이에는 다른 변수들에 비해 비교적 높은 상관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중 한 사람 또는 모두의 부재가 판별체와 가장 큰 상관을 보여주고 있다. 삶 속에서 발생한 충격적 사건이나 곤란 등이 그 다음으로 높은 상관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사건에 대한 의미부여, 책임의식의 소재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변수들과 함께 포함되었던 다른 변수들과 선형 판별체와의 상관은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형 판별체에 주요변수로 추출된 가족, 주변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자율성이 선형 판별체와 낮은 상관을 보이는 것은 선형 판별체에 속한 다른 변수와의 상관이 기타 변수들 사이의 상관 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선형 판별체에 대한 기여도가 분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율성 : 책임소재, 상관계수=.38; 만족도 : 사건에 대한 의미부여, 상관계수=.40)

2) 판별식에 의한 집단 분류의 정확성

판별식이 얼마나 실제의 집단을 잘 분류하여 주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판별식 도출에 사용되지 않은 유보집단을 판별식에 의해 분류해서 생긴 예측집단과 실제 소속집단을 비교 검사해 보았다. <표 3>에서 대각선상에 분류된 청소년들은 판별식이 정확히 분류한 경우이다. 110명중 82명 (74.5%)에 해당하는 가출 청소년들이 정확히 분류되었으며, 110명중 90명 (81.8%)에 해당하는 비가출 청소년들이 정

확히 분류되었다. 정확히 분류된 표본의 수를 전체표본의 수로 나눈 비율을 hit ratio라 한다. 여기서의 hit ratio는 78.1%로서 우연에 의한 확률 (50%)보다 월등히 높았다.

<표 3> 유보집단을 사용한 검정 분류 결과

실제 집단	집단의 크기	예측 집단	
		가출자 집단	비가출자 집단
가출자 집단	110	82 (74.5%)	28 (25.5%)
비가출자 집단	110	20 (18.2%)	90 (81.8%)

(정확히 분류된 표본의 비율, hit ratio = 78.18%)

일반적으로 hit ratio만 보고 분석이 잘되었는지를 알 수 없으며 이를 파악하기 위해 C_{max} 와 C_{pro} 라는 두 가지 기준을 사용한다. C_{max} 는 전체집단을 표본의 수가 가장 많은 하나의 집단으로 분류하였을 경우의 hit ratio를 말하며, C_{pro} 는 각 대상을 무작위로 집단의 크기에 의한 사전확률에 따라 분류하였을 경우의 hit ratio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두 집단의 크기가 동일하므로 C_{max} 와 C_{pro} 의 값이 동일하게 0.5이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hit ratio가 C_{max} 나 C_{pro} 보다 20-30% 정도 크면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볼 때,⁴³⁾ 본 연구에서는 hit ratio가 C_{max} 나 C_{pro} 보다 무려 28.1% 크게 나타나 판별식에 의한 가출 및 비가출 집단의 분류가 만족스러움을 보여 주었다.

VI. 논의 및 함의

현재까지 가출과 관련된 각종 연구를 통해 제기된 가출 관련 변수들을 Hill (1959)의 ABCX model과 McCubbin & Patterson (1983)의 Double ABCX model에 따라 분류한 다음, 이들 여러 가지 변수들 중에서 가출집단과 비가출집단을 가장 효율적으로 분리시키는 요소들을 찾아보았다. 각 요소들의 선형결합체인 판별식의 정확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판별식 추출에 사용되지 않았던 표본을 갖고 검증해 보았다. 총 14개의 변수 중 6개의 변수가 판별식에 포함되었고 판별식의 정확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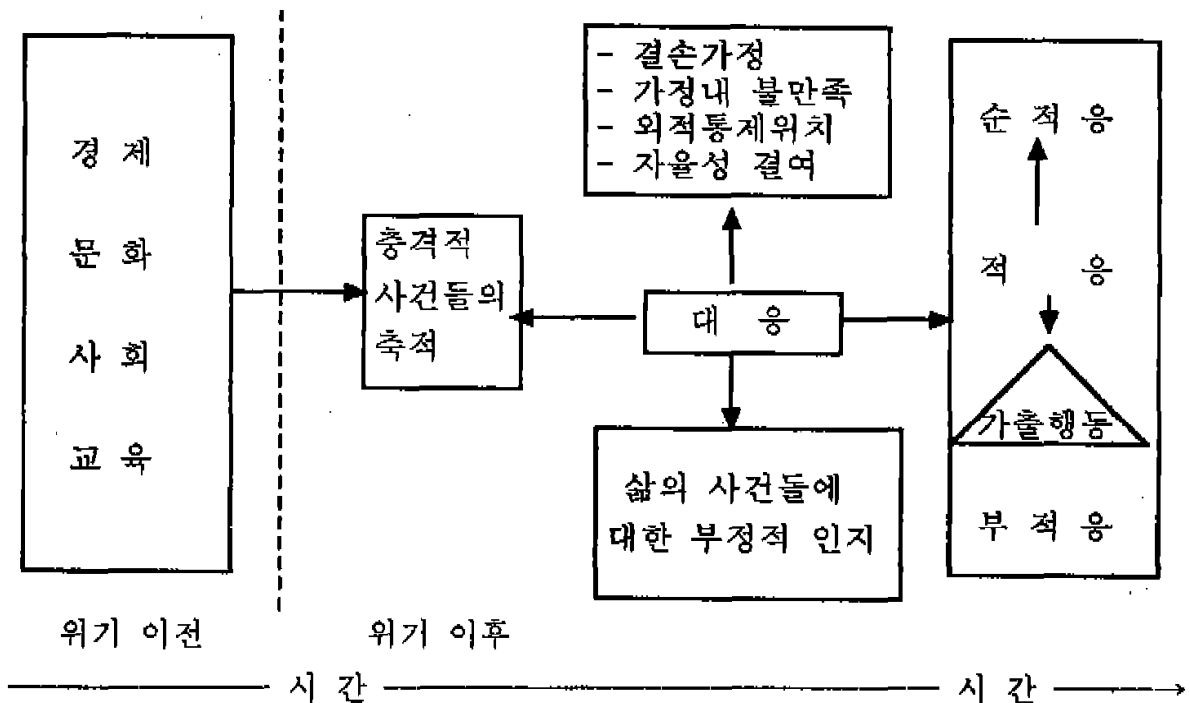
43) 채서일, 『사회과학 조사방법론』, 2판, 학현사, 1994, p. 547

사회과학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네개의 변수 전체를 판별식에 포함시켜 판별식의 정확성을 검증해 보았을 경우의 정확도(hit ratio)는 79.09%이었다. 이수치는 6개의 변수만을 포함시켰을 경우의 78.18%와 거의 차이가 없었다. 이것은 그간 여러 연구에서 이론적으로 지적되어 왔던 가출 관련 변인들 중에서 많은 부분이 가출과 비가출을 구분짓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영향을 주더라도 그 힘이 미약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론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가출 관련 변수들 중에서 실증적 분석을 통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수를 찾아낸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하겠다. 본 연구에서 유효한 판별변수로 나타난 변수들과 Double ABCX Model을 결합하여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호작용 모형을 <그림 2>에 정리해 보았다. 청소년이 삶 속에서 충격적이고 괴로운 사건들을 많이 경험하고, 이것이 축적된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충분한 자원이 결핍된 가정(결손가정, 불만족스런 가정, 외적 통제 위치를 소유한 가족원들, 자율성이 결여 등)에서 살면서,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내야 할 하나의 도전으로 적극적,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패배적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가정의 전반적 분위기 속에서, 순적응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부적응의 한 형태인 가출을 택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판별식에 포함된 변수들을 기초로 해서 가출 가능성이 큰 청소년을 개별 변수 별로 정의해 보면, 첫째, 어머니나 아버지 또는 양친 모두가 없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른바 결손 가정의 청소년들이다. 이는 국내외의 여러 조사에서 밝혀진 바

<그림 2> 가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상호작용모형



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최경석의 연구에 의하면, 일시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가출 아동 775명 중 친부모가 있는 아동은 전체의 42.2%에 불과하여 반도 되지 않았고, 편모만 있는 아동 12.4%, 편부가 17.8%로 나타나서 결손 가정의 아동이 대부분이었음을 보여주었다.⁴⁴⁾ 미국에서의 한 연구의 경우,⁴⁵⁾ 많은 가출청소년들이 기능상 문제가 있는 가정, 자원이 부족한 가정, 편부모 가정을 둔 대도시 주변에서 발생한다고 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가출자의 약 10%가 부모 모두 계시지 않은 가정 출신이며, 36%가 편부모와 함께 살고 있던 청소년들이었다. 서울특별시 시립 아동상담소의 1995년 자료에서도⁴⁶⁾ 1994년 총 가출아동의 37.1%만이 부모가 생존해 있었고 14.5%는 편부, 13.0%는 편모 하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이번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친부모가 있는 가출청소년은 전체의 39.7%이었고, 23.9%가 양부모가 계시지 않은 가정, 36.4%가 편부모 가정 (편모가정: 10.3%; 편부가정: 26.1%)이었다. 경제적 상황에 따른 가출자의 분포를 살펴보면, 46.7%가 중산층, 34.1%가 저소득층, 10.8%가 생활보호대상자 가족 출신이었고, 0.8%가 부유층 가정 출신이라고 답하였다. 비가출자의 경우 90.3%가 중산층, 0.6%가 저소득층, 0.3%가 부유층이라고 답해 비가출 청소년에 비해 가출 청소년들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임이 드러났다.

둘째, 가출자는 비가출자에 비해서 그들의 생활 속에서 보다 심각한 삶의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것은 가출자는 비가출자에 비해서 보다 심각한 삶 속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는 선행연구들과⁴⁷⁾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Hill의 ABC 모델이나⁴⁸⁾ McCubbin 과 Patterson 의 Double ABCX 모델,⁴⁹⁾ 그리고 Selye의 생리적 스트레스 이론,⁵⁰⁾ Lazarus & Launier 및 Lazarus & Folkman 등

44) 최경석, 앞 논문, 1982, pp. 118-120.

45) J. Rotheram-Borus, "Serving runaway and homeless youths", *Family and Community Health*, 14(3), 1991, p. 23-32.

46) 서울특별시 시립아동상담소, 앞 보고서, 1995, p. 20.

47) M. Beyers, "Psychosocial problems of adolescent runaways(Doctoral dissertation, Yale University, 1974)",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35, 1975, 2420B-2421B; A. R. Robert, "Crisis concepts applied to adolescent runaways and nonrunaway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ryland, Baltimore Professional Schools, 1978)",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39, 1979, 4504A-4505A; R. A. VanHoutens, "Life stress: A predictor of adolescent running away (Doctoral dissertation,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1977).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38, 1978, 5719A; D. K. Walkers, "Runaway youth of the 1970's: A study in one Boston suburb (Doctoral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1978).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39, 1979, 2848A-2849A.

48) R. Hill, 앞 논문, 1958, pp. 139-150.

49) H. I. McCubbin & J. M. Patterson, 앞 논문, 1983, pp. 7-37.

50) H. Selye, *The stress of life* (rev. ed.), New York: McGraw-Hill, 1976.

정소년가출 예방을 위한 가족 및 지역복지 서비스 모형

의 심리적 스트레스 이론들에서⁵¹⁾ 주장된 바와 같이 청소년들을 둘러싼 환경으로 부터의 각종 요구와 이들을 처리하기 위한 각종 자원들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하여 장기화 될 때 위기가 오고 위기로부터의 탈출 행동이 가출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 지난 12개월 내 가출자 집단이 경험한 삶의 사건들 (N=184)

순위	사건의 내용	경험자 수	구성비(%)
1	학교 성적의 급격한 하락	80	43.5
2	할머니 또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심	59	32.1
3	어머니가 일나가기 시작함	49	26.6
4	부모간에 부부싸움의 횟수가 늘어남	48	26.1
5	가스홀입이나 마약을 시작함	44	23.9
5	부모와 싸우는 횟수가 늘어남	44	23.9
7	친한 이성 친구와 헤어짐	43	23.4
8	원하는 학교 이외의 활동을 못하게됨	42	22.8
9	처음으로 이성 친구와 데이트를 하게됨	41	22.3
10	학교에서 정학 처분을 받음	37	20.1
11	형제 또는 자매의 가출	36	19.6
12	부모가 이혼함	33	17.9
13	친구들이 갑자기 따돌리기 시작함	31	16.8
14	부모 중 하나가 재혼함	29	15.8
15	부모가 별거 생활에 들어감	26	14.1

충격적 사건이나 곤란에 해당하는 것들 중 본 연구의 가출자 집단들이 지난 12개월 사이에 경험한 사건들은 <표 4>의 내용과 같다. 가출자 집단이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학교에서의 성적의 하락이었다. 학교성적의 하락은 비가출집단의 가출 충동 이유에서도 277명중 가출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한 172명이

51) R. S. Lazarus & R. Launier, "Stress-related transactions between person and environment", In L. A. Pervin & M. Lewis (Eds.), *Perspectives in Interactional Psychology*, New York: Plenum, 1978, pp. 287-327; R. S. Lazarus & S. Folkman,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1984.

제시한 가출 충동의 이유들⁵²⁾ 중에서 집안에서의 부모의 잔소리나 꾸중이 이어 두 번째로 꼽고 있는 이유이어서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에게 있어 학교에서의 성적에 대한 압박감과 그로 인한 부모 및 자신의 실망이 현실 도피로 까지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라 할 수 있다. <표 4>에 제시된 그 밖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성과의 만남, 가스 흡입 친구의 따돌림, 학교에서의 정학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가정 내에서의 문제로 인해 충격을 받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외에 <표 4>에 제시되지 않은 삶의 사건들을 살펴보면, 현재의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됨(24명), 부 또는 모의 사망(23명), 부 또는 모의 와병(22명), 새로운 학군으로의 이사(22명), 친한 친구의 죽음(20명), 부 또는 모의 실직(19명) 등을 지적하고 있다. 혼전 임신을 당한 경우도 7명이나 됐으며, 혼전 임신을 시킨 경우가 9명이나 됐다. 청소년들이 이러한 삶의 사건들을 만나게 될 때, 가정 또는 자기 자신을 둘러싼 환경 가운데서 여러 가지 도움을 얻게 될 때는 이들을 극복할 수 있으나, 가정에 존재하는 자원이 빈약할 때는 부적응 현상의 하나인 가출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셋째, 자신들의 가족이나 주변환경에 대해 불만족해 하는 청소년들이다. 본 연구의 가출자 집단이 불만족해 하는 삶의 요인들을 불만족의 정도가 큰 것부터 차례로 살펴보면, 사고 싶은 물건을 살 수 없는 가정의 능력, 여가를 즐길 수 없는 여건, 가족 전체, 학교에서의 생활, 사는 지역의 이웃 환경, 사는 지역의 商街, 자신이 쓸 수 있는 용돈의 액수, 가정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 형제 자매들의 수, 친척들과의 관계, 생활하던 집 자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가정을 둘러싼 전반적인 삶에 대해 불만족해 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가출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청소년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충격적 사건이나 곤란들과는 관계없이 나타나는 불만이다 (상관계수, $\alpha=0.18$). 반면에, 이러한 불만들은 가족의 응집력과 밀접한 상관을 보였다 (상관계수, $\alpha=-0.61$). 가족원끼리의 응집력이 낮을수록 불만은 높았다. 가족 및 주변환경에 대한 불만은 삶 속의 사건이나 곤란에 대한 가족의 전반적 인식, 또는 긍정적 의미 부여와도 어느 정도 상관을 보였다 (상관계수 $\alpha=-0.40$). 즉, 가족원들 사이에 응집력이 없고 따라서 가족에게 닥치는 어려움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에서 청소년들은 가정이나 그 밖의 생활환경에 대해 불만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52) 본 연구에서 비가출자 277명 중 가출 충동을 느껴 본 적이 있다고 답한 사례수는 172명으로서 전체의 62.1%를 차지하였다. 그 이유들을 순위대로 살펴보면, ① 부모의 잔소리, 꾸중(52명); ② 성적의 하락 (46명); ③ 억울한 꾸중(22명); ④ 가정에서 무시당하거나 존재 가치를 상실할 때(22명); ⑤ 취미 등,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할 때(18명); ⑥ 부모가 부부싸움을 할 때(17명); ⑦ 가정에서 이해 받지 못하고 소외당할 때(14명); ⑧ 부모와의 말다툼 등 충돌 시(11명); ⑨ 형제 또는 다른 아이와 비교당할 때(9명) 등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에 대한 불만족, 삶에 대한 불만족의 원인들을 밝혀 보지 않았으나, 미국의 선행연구들에⁵³⁾ 나타난 가출 청소년들의 가출 전 생활상황을 살펴보면: ① 알코올 및 약물을 남용하고 있는 부모와 함께 살면서,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및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었음; ② 우울증에 빠져 있었음; ③ 성적불량, 무단 결석, 선생님의 괴롭힘, 선생님을 싫어함 등 학교문제를 갖고 있었음; ④ 편친, 또는 양친 없이 살고 있었음 (약 50%); ⑤ 가정 내부에서 성인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음(61%)⁵⁴⁾; ⑥ 부모에 의해 청소년에게 내려진 불합리한 요구나 제재 등⁵⁵⁾으로 추가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음; ⑦ 가족 내에서 잦은 말다툼을 경험함 (집나온 이유의 60.5%)⁵⁶⁾; 8) 빈곤 가정에서 생활함; 그리고, ⑨ 지역사회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음 등으로 나타났다. 앞에 제시된 불만족의 내용들과 미국 내에서의 연구를 통해 살펴본 불만족 요인들을 연결해 보면 우리 사회의 가출청소년의 생활 상태를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이들 어려움과 불만족의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청소년이다. 이른바 외적 통제위 위치 (external locus of control)를 갖고 있는 청소년들이다. 선행연구에서 가출자 집단은 계획기술이 부족하고 현재적인 시각이 강하다고 나타났으며⁵⁷⁾ 비가출자에 비해서 약한 초자아 능력을 갖고 있다고 밝혀졌다.⁵⁸⁾ 외적 통제위 위치 경향은 자신의 행동이나 노력과 다른 사람의 행동 또는 일의 결과가 전혀 관련이 없다는 무력감에서 출발한다. 즉, 자신이 어떤 행동과 노력을 하더라도 결과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자포자기의 심정에서 출발한다.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예상된 결과가 따르지 않을 경우, 자신의 노력이 차이를 발생시킬 것이라는 기대 또는 예상을 점점 덜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되풀이되면 삶의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 예견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고, 무슨 일이든지 자신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남의 의지 또는 행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돌려버리려는 경향에 빠지는 것이

-
- 53) R. S. Levine, D. Metzendorf & K. A. VanBoskirk, "Runaway and throwaway youth: A case for early intervention with truants", *Social Work in Education*, 8(2), 1986, pp. 93-106;
- 54) United States General Accounting Office, 앞 보고서, 1989, pp. 2-3.
- 55) U. S. Congress, House Committee on Education and Labor, Subcommittee on Human Resources, *Settlement on the runaway and homeless youth program*, General Accounting Office, 1982. p.2.
- 56) Levine, Metzendorf & VanBoskirk, 앞 논문, 1986, p. 100.
- 57) C. R. Hartman, A. W. Burgess, & A. McCormack, "Pathways and cycles of runaways: A model for understanding repetitive runaway behavior", *Hospital and Community Psychiatry*, 38(3), 1987, pp. 292-299. (Canada의 가출자 보호소에 머물고 있는 149명의 가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 58) R. P. Elenewski, "Runaway youth: A study of personality factors and locus of control dimension in adolescent runaway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ami, 1974)",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35, 1975, 1975A-1976A.

다. 이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며 어떤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다고 느껴 이전의 친숙한 행동을 되풀이하는 경향이 있어 반복적인 가출을 하게 된다고 한다.⁵⁹⁾ 또한 이들은 자신들에게 발생한 어려운 상황들을 자신의 책임으로 알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타인이나 주변상황(운, 주변 여건의 변화 등)에 의해 해결 될 것을 기대한다고 한다. 이러한 인식 체계는 주로 가정 내에서 형성되고 사회생활에 의해 보충적으로 영향을 받아 보다 깊이 형성된다.⁶⁰⁾

다섯째, 가출청소년들은 비가출 청소년들에 비해서 삶 속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감당해 내야 할 하나의 도전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부정적이고 패배적으로 받아들이는 가정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었다. 가출청소년들이 속한 가정은 자신들이 닦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문제에 정면 대응하여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기보다는 사건들을 삶의 일부로 체념하듯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당면문제를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정의하여 사기를 북돋아 나아가기보다는 쉽게 낙심하여 포기하는 성향이 있었다. 동일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 사건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행동 및 감정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⁶¹⁾ 이것은 환경으로부터의 자극과 그에 대한 개인의 반응 행동 사이에는 인지과정이 존재한다는 인지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다. 힘들고 어려운 사건들을 재 정의해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의미 부여를 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작은 문제들로 나누어서 하나 하나 처리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가출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은 예방될 수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가출청소년들은 비가출 청소년들에 비해서 자율성이 회박하여 무엇이든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할 수 없는 성격을 갖고 있었다. 이것은 앞서의 외적 통제와 어느 정도 관련을 갖고 있다고 보여진다($r=0.38$).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결정하거나 어떤 일을 시도해 보지 못한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가출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할 때에는 주변의 나쁜 친구들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고 추리해 볼 수 있다. 실제로 가출원인에 관한 연구에서 가출원인 중, 열악한 가정적 요인에 이어 나쁜 친구가 차지하는 역할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⁶²⁾

59) C. R. Hartman, A. W. Burgess, & A. McCormack, 앞 논문, 1987, p. 292.

60) *ibid.* pp. 292-293.

61) H. D. Werner, "Cognitive theory", In F. J. Turner(ed.), *Social work treatment*, New York: Free Press, 1986, pp. 91-130.

62) 이장현, "한국사회에 있어서의 청소년 일탈행위에 관한 사회학적 분석", 『이대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31집, 1978, p. 220; 표갑수, 아동의 가출원인에 관한 연구(앞 논문), 1980, pp. 31-32.; 김만두, 앞 논문, 1983, p. 197; 김준호, 앞 논문, p. 74. 특히 김준호의 연구에서는 가출한 이유 중 '친구 꼬임'이 32.7%(n=199)로 가장 많았

중요한 의미를 가지리라 생각했던 가족내의 응집력, 가족의 적응력, 가족원끼리의 의사소통 형태, 청소년 자신의 충동성, 인내력의 부족, 가족이 이웃이나 친지들로부터 동원할 수 있는 도움, 가족이 취할 수 있는 전문 서비스 기관으로부터의 도움, 종교를 통한 영적인 도움 등은 가출집단과 비가출집단을 분리하는데 별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다음의 세 가지 중 하나로 또는 복합적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가출의 현상을 대표성을 띤 추출 집단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설명해 내고 있다. 둘째, 추출된 연구집단에 문제가 있었다. 즉, 가출집단을 추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가출자만을 접촉함으로써 인해, 가출후 자체적 생존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소극적 가출자들만이 연구대상에 포함됨으로써 가정의 구조상 문제는 없지만, 갈등을 피해 가출한 집단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가족내의 갈등을 나타내는 변수들이 가출자와 비가출자를 분리해 내는데 중요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른바 정상 가정의 청소년 가출이 많다고 하는 일반의 주장과 일치하는 시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가족 기능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을 측정하는데 사용된 도구들이 측정하고자 했던 개념들을 정확히 측정하지 못했다. 본 연구의 표본을 통해서 산출된 각 도구들의 신뢰도가 비교적 낮았다는 것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하나의 가능성은 가출자 또는 비가출자 청소년을 통해서 자신들의 가족 상황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묘사해 보도록 하였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족역동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점도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VII. 문제 예방을 위한 서비스 모형

청소년 가출 예방책은 앞에서 살펴본 가출자와 비가출자를 有憲하게 분류해 내고 있는 각 요소들(구조적 결손가정, 삶 속의 충격적 사건, 주변 삶에 대한 불만족, 사건에 대한 부정적 인지, 외적 통제의 위치, 자율성의 결여 등)에 중점을 두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본래 목적이 청소년 가출예방을 위한 가족복지 서비스 모형의 개발에 있으나, 가족은 필연적으로 그것을 내포하고 있는 사회의 제반 조건에 의해 영향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적인 차원에서 가족을 보호하고 가족이 사회적 기능을 충분히 수행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가출문제를 예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예방대책을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가출예방을 위한 일차적 예방대책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것은 가정에 문제나 결손이 출현하기 전, 청소년의 생활 가운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

고, 다음이 잘못에 대한 꾸중(25.7%), 충동이나 답답함(25.7%) 등이었다.

나기 전, 주변생활에 대한 만성적인 불만족이 잉태되기 전, 또는 가출 성향의 성격이 형성되기 전에 해로운 사회 및 가정환경을 예지하거나 개선함으로써 청소년이 속한 가정 및 청소년 개인이 위기나 문제에 빠지는 확률을 감소시키는 것에 목표를 두는 예방책이다. 문제나 증상 그 자체를 개선하고 치료하는 것에 목표를 두지 않고 아동과 청소년의 가출압력 요인과 가출 욕구 요인을 근원적으로 봉쇄하고 방어하는 예방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가출자와 비가출자를 유의하게 분리하고 있는 위의 여섯 가지 요소들이 청소년 개인이나 그 가정에 이미 출현하여 가출 압박 요인으로서 작용하고 있을 때,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가출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입 대책을 본 연구에서는 이차적 예방대책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먼저 일차적 예방대책을 살펴본 후 이차적 예방대책을 제시해 보기로 하겠다. 이차적 예방대책은 일차적 예방대책의 영향권내에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1. 일차적 예방대책

구조적 결손가정의 발생을 예방하고, 청소년의 삶 속에서 충격적 사건이 덜 발생하도록 하며, 주변 삶에 대한 전반적 불만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주변 사건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며, 스스로 책임지며 행동할 수 있는 청소년을 육성하는 대책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일차적 예방대책을 경제, 문화, 사회 가치 및 가족관계에 대한 교육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경제

결혼 후 구조적 결함에 이르는 사유들로서 이혼, 별거, 사별, 유기, 실종, 도망, 가출, 수형, 장기 부재 등을 들 수 있다. 사고로 인한 사별, 실종, 수형과 직업상의 장기부재 등을 제외한 나머지 이유들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하나는 빈곤, 다른 하나는 순수 가족관계상의 갈등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그중 하나의 요소인 빈곤으로 인해 가족이 구조적 결손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예방책이 경제적 예방책에 속한다. 앞서 살펴본 주변 삶에 대한 불만족의 주요 내용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⁶³⁾ 대부분의 불만족 요인이 가정생활의 빈곤에서 유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빈곤 생활을 하는 가정의 아동이 가출을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은 생활수준이 낮으면 낮을 수록 자녀를 감독할 시간적, 정서적 여유가 없어져 부모의 무

63) 불만족의 정도가 높은 것부터, 빈곤과 관련된 순위를 살펴보면, ① 사고 싶은 물건을 살 수 없는 가정의 능력, ② 여가를 즐길 수 없는 여건, ③ 가족 전체, ④ 사는 지역의 이웃환경, ⑤ 사는 지역의 商街, ⑥ 자신이 쓸 수 있는 용돈의 액수, ⑦ 생활하던 집 자체 등이다.

관심, 방임, 또는 과격한 행동 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클 것이다. 이러한 빈곤은 아동 및 청소년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치되게 하는 결과가 되므로 기본적으로 의, 식, 주 및 의료의 공급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적부조 제도가 강화되어야 하겠고 가족의 경제적 상황에 영향을 주는 실업수당, 연금,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 등이 확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2) 문화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 유해 업소를 비롯한 퇴폐 향락 산업에 대한 정화가 따라야 한다. 미성년자를 고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향락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미성년자들을 유혹하는 무단광고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이러한 광고는 가정에서의 갈등에 휩싸인 청소년들에게 가출의 유인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른바 3D 현상이 만연하고 있는 가운데 향락산업이 청소년들에게 손짓을 할 때, 어려움을 참고 견디려는 청소년의 갈등은 그만큼 클 것이다.

3) 사회적 가치 체계

청소년 가출문제는 가출자 자신과 그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다. 가출청소년은 어떤 면에서 성인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 가치와 구조 속의 희생물이라 볼 수 있다. 성인 사회에 수술을 가하지 않은 채 청소년 가출에 대한 대책이나 예방책을 논하는 것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다고 본다. 정당하게 땀흘린 사람이 정당한 대접을 받는 사회, 질서를 지킨 사람이 대접을 받는 사회로 변화되기 위해서 사회의 지도계층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 사회 가치 체계의 재정립이 있어야 할 것이다. 권위에 복종하는 사회, 복종할 만한 권위가 존재하는 사회로 변화되어 올바른 삶의 방향을 청소년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청소년들에게 사회의 바람직한 가치를 내면화시키고 더 나아가 창의적으로 자아를 실현해 나가는 능력을 키워 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현실적인 과제가 무엇인가를 자각하고 자기의 역할을 수행하는 능력을 키워 줘야 할 것이다.

4) 가족관계 교육

가족의 중심 역할을 하는 부부가 건전한 가정을 이루면서 적어도 자녀들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는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가출예방을 위한 가족관계 교육은 가정을 이루기전의 교육과 가정을 이룬 후의 교육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결혼 전 교육은 주로 학교나 직장 또는 대중전달 매체를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는데, 가정생활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

하는 배우자 선택의 방법,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부모의 역할, 부모의 책임, 부모-자녀 관계 등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어 책임 있는 가정을 만들고 이끌어 가도록 교육해야 할 것이다.

가정을 이루고 난 후의 가출예방 교육은 주로 부부, 부모-자녀를 중심으로 한 인간관계상의 갈등을 예방, 조절, 처리하여 가족의 통합을 보호 유지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자녀의 양육방법에서는 자녀를 긍정적이며 책임감 있고 자율적인 인간으로 키우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교육함으로써 힘든 일을 당할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자녀에 대한 지나친 기대, 과보호, 지나친 간섭이나 지나친 불간섭, 편애 등이 가출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으며 가출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통찰력 강화 교육도 필요하다. 이러한 결혼후의 교육은 유치원,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의 학부모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고 각 대학교의 개방대학의 교과 과정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갈등을 빚고 있는 가정에게는 전문기관을 통한 가족상담 및 치료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이차적 예방대책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가출자와 비가출자를 통계적인 면에서 유의하게 분리시키는 요소에 기초하여 잠재적 가출청소년이나 그 가정을 미리 찾아내어 가출이 발생하기 전에 적절한 개입을 하여 가출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차적 예방대책이다. 청소년이 구조적 결손가정에서 살고 있거나, 삶 속에서 많은 충격적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경우, 주변 삶에 대한 전반적 불만족을 느끼고 있거나, 주변 사건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경우, 모든 상황의 책임을 남에게 돌리려 하거나, 어떤 일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노출될 때, 문제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에 진단하고, 조기에 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들 여섯 가지의 요인들 중에서 어느 한가지에 해당되는 청소년의 경우도 잠재적 가출자로 분류될 수 있겠으나 여섯 가지 요인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가 가출 가능성이 가장 큰 청소년으로 분류되어 이차적 예방이 시급히 요청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각 요인별로 제시되는 예방대책에 대한 실천활동 모형을 <그림 3>에 개략적으로 제시하였다.

1) 결손가정에 대한 대책

본 연구에서는 구조적 결손가정, 즉 양친 또는 편친이 없는 가정이 가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별, 이혼,

별거, 유기, 실종, 도망, 수형 및 장기부재 등으로 인해 결혼관계가 분열된 가정은 의미한다. 이것은 가정의 구조적 결손이 곧 기능적 결손을 초래하고 있다고 해도 무리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동 및 청소년은 아직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미성숙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부모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의존의 대상이 결핍되어 있을 때, 자신들에게 가해지는 각종 요구(demand)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가출이라는 도피적 행동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양친 또는 편친의 부재로 인하여 결핍되는 가족기능은 Kadushin & Martin이 제시한 부모의 역할에 잘 나타나 있다.⁶⁴⁾ 이에 대한 기능 보충이 결손가정에 대한 가출예방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그들이 제시한 부모의 주요 역할 기능을 살펴보면: ① 의, 식, 주, 교육, 건강 보호, 사회적 활동 및 오락 활동에 대한 자녀의 욕구를 충족; ② 자녀의 건전한 정서 발달에 필요한 사랑, 안전, 애정 및 정서적 지지의 제공; ③ 자녀의 지적, 사회적, 정신적 발달에 필요한 적절한 자극의 부여; ④ 자녀의 사회화를 도와 사회집단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집단 내에서 통하는 수용 가능한 행위를 가르침; ⑤ 자녀를 훈육하여 사회가 용납하지 않는 자세와 행동을 습득치 못하게 함; ⑥ 자녀를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危害로부터 보호함; ⑦ 가족내의 불편, 충돌, 불만 등을 해결하여 모든 가족원의 욕구를 조화롭게 충족 시킴; ⑧ 자녀가 사회 속에서 자아 정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함; 그리고, ⑨ 자녀와 외부 세계 사이의 중재자로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외부 복지기관의 도움을 수용하는 일 등이다. 양친 또는 편친이 없는 가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에게는 앞서 제시된 부모의 기능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각종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가출이 예방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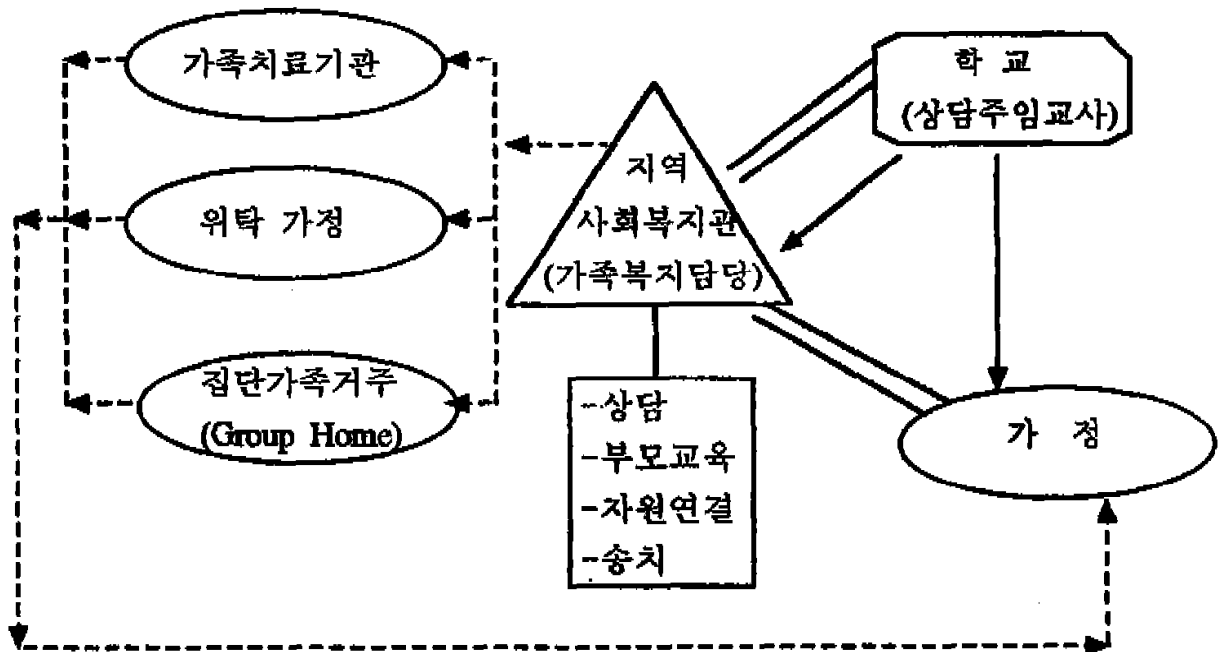
이를 위해서는, 첫째 경제적인 자원 공급을 위해 앞서 일차적 예방의 경제적 측면에서 언급된 공적부조의 강화 및 확대, 실업수당의 실시, 산업재해 보상보험, 연금제도의 강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겠고 소년 소녀 가장 세대에 대한 국가 및 민간의 경제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 청소년들에게는 직업훈련과 취업 알선을 통해 건전한 출발을 위한 준비를 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서적, 사회적 보호 및 발달을 돕고 최소한의 훈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편친의 부모가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을 때, 아동 및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만이라도 부모를 대신해서 부모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위탁가정보호 제도의 확대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 때는 편친의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 기능을 강화해 주는 서비스, 그리고 아동과 편친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이 동시에 필요할 것이다.⁶⁵⁾ 이러한 위탁보호 제도는 양친이 모두 없

64) A. Kadushin, & J. A. Martin, *Child welfare services* (4th ed.),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1988, p. 10-12.

는 소년, 소녀 가장들을 위해서도 대모제와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⁶⁶⁾ 소년, 소녀 가장에 대한 비공식적 원조 체계를 기관이나 국가가 대모제 혹은 위탁가정으로 환원하여 보다 공식화시킴으로써 이들 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⁶⁷⁾ 또한 수형이나 가족과 먼 지역에서의 공사 등의 이유로 인해 부모의 기능이 잠정적으로 상실, 무능력, 또는 혼란이 초래된 경우, 부모의 기능을 잠정적, 부분적으로 대신해 주는 방향으로 위탁가정보호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림 3> 청소년 가출 예방을 위한 활동 모형



- △ : 활동의 총체적 조정
- : 통보, 서비스의뢰(가출예기자:성적하락, 무단결석, 이상행동등)
- : 활동의 출발점(Initiator)
- : 송치(Referral) 및 복귀
- = : Eco-map작성에 필요한 정보의 이동

셋째, 소집단 가족 거주제(Group Home)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양친이 없는 청소년들, 또는 부득이한 이유로 인해 극심한 역기능이 존재하는 가정으로부터 벗어나기 원하는 청소년들과, 훈련받은 대리 부모 등으로 한 가족을 구성하여, 청소년

65) 문선화, "가정위탁보호의 내용과 서비스의 전개방향", 『가정위탁보호의 현황과 전망』, 한국어린이재단 부산종합사회복지관 주체 가정위탁보호세미나 발표논문, 1994, p.13.
 66) 조봉희, "소년가장가정의 대모제 서비스에 관한 연구", 『동광』, 통권 제87호, 문선화, 앞 논문, 1994, p. 14에서 재인용.
 67) 문선화, 앞 논문, 1994, p. 13.

들이 형제, 자매, 부모 사이의 정서적, 사회적, 지적 자극과 격려를 통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대리 부모는 정상적인 가정에서 부모가 제공하는 정서적 지지, 지도 및 행동의 한계 설정, 소집단 가족내의 갈등 조정 등을 통해 가족을 통합하는 노력을 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정상적인 가족생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구조적 결손가정은 아니지만 결손에 가까운 유사 결손가정을 위한 서비스가 필요하다. 밤늦게 귀가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동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건전한 놀이 공간과, 밤늦게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독서실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놀이 시설 및 독서실에서는 방치된 놀이 및 공부가 아니라, 전문지도자나 자원봉사자가 부모의 기능을 대신하기 위해 아동 및 청소년을 지도하고 필요에 따라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삶 속에서의 충격적 사건에 대한 대책

생활 속에서의 충격적 사건이 가출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청소년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으며 어떤 사건으로 충격을 받고 있는가를 조기에 발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들 가까이에서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주의 깊게 살피는 일이 필요하다. 청소년이 어떤 일로 인해 괴로움, 중압감, 시련 등을 받고 있거나, 비판을 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이상행동(고립, 우울, 장단기 결석 등)이나 갑작스런 성적하락 등이 포착되었을 때,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이 속한 가정과 주변환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살필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체계는 가정-학교-지역사회 복지관을 연결하는 상호 협력 체계가 되어야 하며, 문제 요인의 조기 발견 및 개입 후 추수정보 수집은 학교와 가정이 상호 협조하여, 그리고 청소년을 둘러싼 주변환경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종합적인 사정(査定)은 지역사회 복지관의 사회복지사가 주체가 되어 실시될 수 있을 것이다. 삶 속에서 사건이 일시에 또는 계속적으로 많이 축적되고 있음이 감지될 때는 적절한 대응 자원의 공급과 함께 대응 전략이 청소년과 가정, 학교 및 사회복지사 사이에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스크리닝 시스템(screening system)을 개발하여 가출 가능성이 큰 학생들을 수시로 발견해 내어 학부모와 지역사회복지관에 통보함으로써 가출예방을 위한 초기 개입 망의 도화선 역할을 할 수 있고, 가족의 문제, 아동학대, 학교생활과 관련된 문제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청소년들을 돌볼 수 있는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교가 가출청소년 예방 사업의 유효한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이유는: ① 취약점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은 학교

에서 노출되게 되어 있다; ② 청소년들이 학교에 있는 동안에는 청소년들에 대한 책임은 학교에 있다; ③ 무단결석에 대한 조기 개입 및 예방은 청소년 가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장기적인 면에서, 이를 위해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사업이 학교 사회사업이다. 초, 중, 고등학교에 학교 전문 사회복지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학생들의 가정과 학교에서의 문제 행동 및 스트레스에 대한 상담은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갈등 상태에 있는 학생의 가정과, 국가 및 민간이 제공하는 부조(扶助) 자원을 연결하는 등의 사회복지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가족의 기능적 구조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날 경우는 전문 가족 치료사에게 의뢰하여 문제 가정을 조기에 수습함으로써 문제의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작업이 절실하다. 학교에서 가출 가능성을 가진 학생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우선이겠지만, 선생님의 시야에는 한계가 있음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가출 가능성을 가진 친구나 동료를 학교 전문 사회복지사에게 미리 알리게 하는 제도도 필요할 것이다. 학교 사회복지 사업과 가족치료 사업이 연계하여 부모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청소년과의 대화 방법, 청소년의 욕구 파악 방법, 욕구 해소 방법 및 가족내의 역동성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필요도 있다.

학교사회사업이 실시되기 전까지는 지역사회복지관의 전문 사회복지사가 이 역할을 맡아야 할 것으로 본다. 학교나 가정으로부터 문제 요인이 발견되었다는 통보를 받는 즉시 지역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는 종합적인 진단을 위해 생태-체계적 입장에 서서, 생태적 생활지도(Eco-map)를 수시로 작성, 수정해 가며 잠재적 가출청소년이 감당해 내고 있는 생활 주변의 무게에 대한 추적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⁶⁸⁾ 또한 수시로 잠재적 가출아의 부모를 교육함으로써 가정에서의 부모 역할을 통한 경제적, 심리적, 정서적 관심과 보호가 충족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부모는 모로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곧 관심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는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밖에, 가정이 부족해 하는 각종 자원들이 있을 경우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각종 복지 자원과 연결하는 연결자의 역할도 요구된다.

3. 생활 전반에 대한 불만족과 부정적 인지 형태에 대한 대책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생활 전반에 대한 불만족은 가족내부의 응집력과 부적상관(알파=-0.61)을 보인 반면, 생활속의 충격적 사건이나 곤란들과는 관계가 없는 것(상관계수, $\alpha=0.18$)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만족의 내용은 대개가 빈곤과 관련된

68) A. Hartman, & J. Laird, *Family-Centered social work practice*, New York: The Free Press, 1983, pp. 157-186.

생활환경에 관한 것들이었다. 이렇게 볼 때 불만족의 요인은 빈곤과 가족 내부의 약한 응집력이라 볼 수 있다. 빈곤이 곧 가정의 응집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극심한 빈곤 하에서는 삶에 지쳐 정서적 여유가 없게 되고, 따라서 서로 서로에게 짜증을 내기가 쉽고, 이렇게 되다 보면 가족관계가 소원해 지기 쉽다고 보여진다. 이것은 곧 전반적인 가족 생활에 불만을 가져온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불만이 가출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의 절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증상에 대한 조기 발견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학교-가정-지역사회복지관의 연계 체계에 의해서 이러한 증상을 발견해 낸 후 그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따라야 한다. 일차적으로는 빈곤과 관련된 문제해결을 위한 자원의 제공 및 연결 노력이 행해져야 하겠고, 동시에 가족구성원들 사이의 상호관계 패턴을 확인하여 문제가 포착되면 문제의 해결을 통한 가족구성원들 간의 응집력 제고를 위한 가족치료사업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치료사업은 전문성을 필요로 함으로, 사회복지사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삶 속에서 각종 사건을 만날 때마다 도전 의식을 갖기보다는 부정적이고 패배적인 사고를 갖게 됨으로써 가출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인지 치료를 통한 인지 교정과 아울러 '할 수 있다'라는 적극적 자세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치료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부정적 또는 부적응적 사고가 형성되는 데에는 가정 속에서 부모가 갖고 있는 생각에 크게 영향을 받기도 하고,⁶⁹⁾ 개인이 갖고 있는 삶의 목적이나 가치에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⁷⁰⁾ 따라서 청소년이 속한 가정 전체의 인지 패턴을 살피고 특히 부모의 인지 패턴을 함께 교정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치료에서는 청소년이나 그 가족이 갖고 있는 삶의 목표나 가치 등을 확인하여 명료화시킴으로써 도전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치료들은 지역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이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⁷¹⁾

4. 성격적인 면(외적 통제위치 및 자율성 부족)에 대한 예방대책

성격적인 면을 수정한다는 것은 가족 상호관계 패턴이나 환경을 고치는 것보다는 어려운 일이다.⁷²⁾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주요 가출 유발 요인을 갖고 있으면

69) A. Ellis, "Rational psychotherapy", *The Journal of General Psychology*, 59, 1958, pp. 35-49.

70) A. G. Nikelly, "Fundamental concepts of maladjustment", In A. G. Nikelly (ed.), *Techniques for behavior change*. Springfield: Charles C. Thomas, 1976,

71) 사회복지사가 활용할 수 있는 인지치료 모델을 위해서는, 엄명용, "임상사회사업에서의 인지론적 접근 방법의 유용성 고찰", 『인제논총』, 11(1), 인제대학교, 1995, p. 186 을 참고할 것.

72) M. P. Leiter & C. Maslach, "The impact of interpersonal environment on burnout on

서 동시에 성격적인 면에서도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린다거나 스스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실행하지 못하는 청소년인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사회복지사나 전문 가족치료 기관을 통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외적 통제 위치 성향은 청소년들 자신의 행동이 어떤 상황에 어떤 차이도 발생시키지 못한다는 무력감이 습관화되면서 자리잡게 된다. 이러한 무력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또는 무력감의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동과 어떤 일의 결과가 상호 관련되어 있다는, 즉, 타인의 행동이나 일의 결과 등이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받는다는 생각과 체험을 조금씩 넓혀 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는 구체적이며 성취 가능한 작은 목표를 설정해 주고 그것을 실천하도록 하여 그 일이 성취되었을 경우 그에 대한 칭찬, 격려와 축하를 해 줌으로써 자신감을 고취하게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점진적으로 보다 어려운 일들에 대한 대응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자율적이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 자신이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점차적으로 길러 주기 위해서는 가족과 학교 생활 속에서 각 구성원들 사이의 심리 사회적 경계 (boundary) 문제를 확실히 해 주는 치료와 상담이 필요하다고 본다.⁷³⁾ 이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첫째, 무엇에 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다. 청소년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행동은 물론, 자신의 욕구와 감정까지도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신의 과도한 욕구, 무리한 자신의 감정까지도 남의 탓으로 돌릴 때는 정확한 지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통제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둘째, 무엇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가에 대한 훈련이다. 타인의 행동, 타인이 갖고 있는 감정, 느낌 및 욕구로 인해 자기 자신이 괴로워하는 현상도 심리, 사회적 경계의 불확실성에서 오는 현상이다. 따라서 타인이 제멋대로 갖고 있는 생각과 감정들이 자신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우울해 하는 경우는 찾아내어 바르게 고쳐 줘야 한다.

셋째로, 정확한 '아니오(No)'를 할 줄 아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이것은 자신의 의견과 욕구, 기분 등을 정확히 표현할 줄 능력과 관계된다. 평소에 부모 및 선생님과도 다른 의견을 갖고 있거나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주고 그에 대한 명확한 표현과 함께 설명을 하도록 한다. 자신이 '아니오' 또는 '싫어'라는 말을 함으로써 친구, 부모, 또는 선생님이 나쁜 반응을 보일 것을 염려해서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은 타인의 행동, 생각, 감정까지도 책임지려 하는 현상에

burnout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9(4), 1988, pp.297-308.

73) H. Cloud & J. Townsend, "Boundaries and your children", *Boundaries: When to say yes, when to say no to take control of your life*,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2, pp. 167-192.

서 나오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의 흡연, 본드 흡입, 마약 복용 등의 비행의 대부분이 친구의 권유에 '싫어'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오는 책임을 자기가 지려 하다가 타인에 예속되는 현상에서 오고 있다고 본다. 시작 단계에서 명확한 한계 설정을 함으로써 남의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는 훈련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이 많은 부분 해결될 것이라 본다.

넷째로는, 타인의 '아니오(No)'를 받아들일 줄 아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친구, 부모, 또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그것을 존중하고 기분 나빠하지 않는 자세를 훈련시켜야 한다. 이것은 남이 설정한 경계를 존중해 주는 것으로써, 이것을 통해 자신의 경계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만족 또는 욕구의 지연에 대한 연습이다. 자신의 충동, 욕구, 욕망에 대해 '아니오(No)'할 줄 아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다. 이것은 나중을 위해 현재의 고통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인내할 줄 아는 능력을 길러 줌으로써, 현재의 고통으로 인해 가출이라는 극단적 행동에 이르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VII. 맺는 말

청소년은 경제, 사회, 정서, 정신적인 면에서 아직은 혼자 설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다. 이들은 일차적으로 가정이라는 사회에 의해 도움을 받으면서 성장하고 가정은 사회 체제의 여러 가지 제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가출청소년 문제는 청소년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며, 가정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임이 본 연구를 통해서 지적되었다. 가정을 둘러싼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향락 퇴폐 문화, 빈부의 격차로 인한 위화감, 권위의 부재, 가치관의 혼돈, 현실 중심적인 감각적인 문화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가정 구조와 가족자원을 가진 청소년들을 좌절하게 하고 부정적인 사고를 갖게 하며, 급기야는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사로잡혀 가출이라는 극단적인 도피 행위를 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을 개인, 가정 누구에게도 물을 수가 없다. 학교와 지역사회와 가정이 함께 손을 잡고 소외된 청소년 및 그 가정에 따뜻한 관심을 보일 때 가출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갈 것이라 생각한다. 예방책에서 제시된 각종 대책들은 어느 한가지만에 치중함으로써는 가출예방 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고 본다.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복지관 및 기타 관련 기관들간의 긴밀한 협조 하에 모든 대책들이 유기적으로 상호 작용될 때 청소년 가출은 예방될 수 있을 것이다.